2008 새해설계 ②

포천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천 복 덕

육상선수 발굴 위한 시스템 開發해야

포천 38선 대회 풀코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육상은 선수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비인기종목인데다가 지난해 포천시 육상팀이 해체되어 우수선수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선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수선수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포천시에서 육성선수들이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트랙이 있어 연습하기 좋지만 각종 행사와 축구대회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운동할 공간이 없다.

대안으로 송우리에서 포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이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3·8마라톤대회 또한 현재 하프코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프코스에는 우수선수들이 참가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선수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풀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포천관내 풀코스로 개발할만한 여건이 안돼 있는 것 같다.

2007년3월에 취임한 포천시 육상경기연맹 천복덕(47·사진)회장은 포천시 육상의 미래는 초·중·고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우수선수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행이 신봉초등학교, 대경중학교가 지난해 육상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수발굴 및 육성에 나섰다.

포천시육상경기연맹은 지난해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에 67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해 연천군, 과천시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또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에 45명이 참가해 30대(남) 차진석 3위, 30대(여) 조경희 4위, 60대(여) 이문자 3위를 기록해 종합2위로 대회를 마쳤다.

또한 철원 DMZ평화마라톤대회에 4개클럽,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에 3개클럽, 중앙일보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2개클럽의 회원들이 참가했으며 이상용 선수는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포천시 최고기록(2시간40분21초)을 수립했으며 정 헌 선수는 3개대회 SUB-3을 달성했다.

포천시 육상경기연맹이 지난해 개최한 주요대회는 포천38선 하프마라톤 대회,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 선발전, 군내면 한마음 꽃길 걷기대회, 제5회 포천시민의 날 육상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동면 5군단 화랑연병장에서 영중면 성동리 구간을 하프마라톤코스로 공인 받기도 했다.

2008년도에는 서울국제마라톤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38선하프마라톤대회 개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생활체육 단축마라톤대회 출전, 선던초 육상부 창단, 중·고 육상대회 개최, 클럽대항 마라톤대회 개최,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육상인의 밤 행사, 연맹 정기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천 회장은 "계획되어 대회를 잘 준비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포천시 육상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천신문사에서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잘 홍보하여 용기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보용 본지자문위원장

한 사나이가 죽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절망도 고통도 없었으며 무슨 짓을 하든 참견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떠들고 해 봤지만 혼자만 있는 하늘나라는 너무 외롭고 무섭기조차 했습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하느님, 저를 지옥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천국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이 많은 지옥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니라"사람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간의 관계와 나눔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착각했던 사나이처럼. 사람은 기쁨은 물론 고통조차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서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삶을 생각할 수 없고 나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함께 있을 때 내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지요.

(문의 011-342-5834)

동장군 축제 폐막식에서

이 지 연 학생 명예기자 · 포천초 4년

일요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큰 일 났다. 어젯밤에 편집국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동장군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포천신문에 며칠 전에 실린 네 글을 보시고, 축제 폐막식에 너를 초대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난 번 기사에 네가 섭섭했다는 이야기만 잔뜩 써서 꾸중하시려고 오라는 것 아니니? 가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 오늘은 엄마가 함께 가야 하겠다"하셨다.

오후 4시에 폐막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에 도착한 것은 2시였다. 며칠 전 월요일에 왔을 때는 한산하고 조용했는데 오늘은 동장군 축제장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길 양쪽으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아저씨들께서, 축제에 온 사람들이 주차하시는 것을 도와주고 계셨다.

차에서 내려서 축제장 입구에 오자마자 지난번에 왔을 때 받지 못했던 동장군 축제 홍보지부터 받아두었다.

그리고 축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초대를 받고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곳에 계시던 자원봉사 아주머니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자원봉사자들께서는 축제가 열리는 동안 주말마다 오셔서 주차질서나 소방안전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동장군 축제 주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마을이 좀 더 잘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이겠지만, 자원 봉사자들께서는 서로 돕는 이웃을 만들기 위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축제를 주최하시는 아저씨들께서는 엄마와 나에게 자유 이용권과 식권을 주시며 반겨주셨다. 며칠 전에 축제장에 걸어오느라고 고생했던 것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팠었던 기억이 싹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지난번 기사 때문에 내가 꾸중들을까봐 잔뜩 긴장하셨던 우리 엄마 얼굴이 활짝 펴져서 더욱 기뻤다. 엄마의 손을 잡고 전통음식 체험관으로 갔다. 돈이 부족하여 침만 삼켰던 기억에 한풀이 하듯이 추억의 도시락도 먹어보고 오뎅도 먹고 삼겹살도 구워먹었다.

전통음식 체험관 옆에는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커다란 달집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소원을 적는 종이가 있어서 두 장의 소원종이에 소원을 빌어서 달집에 걸어놓았다.

한 장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던데,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장군 축제에 우리 시에서도 늘- 도움을 주게 해 주세요"했고 다른 한 장에는 "우리 포천시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가족이 모두 부자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썼다.

4시가 가까워 오자 사물놀이 소리가 들려와 축제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했다. 포천중학교의 사물놀이 부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농악놀이를 하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이와 함께 행사 진행자의 사회로 내빈이 소개되고, 물결처럼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환성 속에서 우리의 소원 달집은 불이 되어 하늘 높이 빨간 불이 되어 피어올랐다.

축제장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사람의 모든 소원이 불꽃이 되어 하늘에 닿는 것 같았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달집태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기뻤다.

이 이야기가 동장군 축제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무드의 가문자랑이라는 이야기 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난다.

"너의 집안은 너 하나로 끝이 나지만 우리 집안은 나로부터 시작 된다네. 나는 살아가는 방법이 중요 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얼마 전 어른들께서 경기도의 발전이 남부에 치우쳐있고 우리 포천은 발전이 안 되고 있다며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까지는 우리 포천시의 발전이 뒤쳐졌다고 하지만, 탈무드의 가르침에도 있듯이 우리 포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동장군축제 준비위원들처럼 스스로 살아 갈 방법을 아는 포천 시민들이 있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시는 우리의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포천시의 앞날이 타오르는 달집처럼 밝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2009년 제 5회 동장군 축제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어려운 학생들 돕기 나서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 성금 전달식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을 1월29일 관내 송우고등학교 학생 5명에게 각 20만원씩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종현 조사위원회 고문은 송우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성금을 전달하면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재이 송우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학교에 재학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염영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장은 1월28일 포천신문사를 방문해 성금 10만원을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염 회장은 전쟁터에서 다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본인의 마음을 담아 기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를 성금을 기탁하는 강수동 동천장학회 이사장이 20만원, 한명숙 청풍삼계탕 10만원, 용아섬유(주) 박노현 대표이사 10만원, 2008년1월부터 정승영 삼거리추어탕 대표가 3만원, 정춘옥 출장부페 청실홍실 대표가 5만원, 윤이용 동성사 대표가 10만원,소속을 알 수 없는 유재철씨가 11월부터 1만원, 익명으로 1만원 등의 성금이 접수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염영화 지회장은 1월28일 포천신문사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현금 10만원을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김종현 고문이 1월29일 송우고등학교를 방문해 어려운 학생들 5명에게 각 20만원씩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포천경찰서, 전깃줄 상습 절도범 2명 검거

포천경찰서는 지난 2006년3월 말경부터 지난 1월초순까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지역의 농업용 전선을 절단기를 이용해 모두 115차례에 걸쳐 1만5천997m(싯가 8천694만4천566원)를 절취한 문 모씨(49·무직), 이 모씨(46·무직)를 검거하고 공범인 권 모씨(48·무직)의 소재를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은 논밭에 설치된 전깃줄을 잘라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한 사람이 위에서 자르면 밑에서 그냥 감아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했으며 작업이 끝나면 검문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 조수석 밑에 숨겨두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봄철이 되면 전깃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농민들의 신고가 늘어나 그 피해 규모가 훨신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스판덱스 카바링사의 선두주자 수성섬유

수성섬유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 : 이수복

주요생산품목 스판덱스 카바링사

위 치 :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146-9번지
전화번호 : 031-544-6455
팩스번호 : 031-544-6456
대 표 : 이수복